**1. 팀 소개**

팀 명 – 바나나

팀 명 선정 이유 –

IT 대표 기업 ‘APPLE’ 사는 회사명을 정할 때 전화번호부의 순서를 고려했다고 한다. 전화번호부는 알파벳 순이므로, 경쟁사 ‘아타리’보다 앞서 나올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APPLE’로 정하였다고 한다. 이를 착안하여 세계적인 IT 기업 ‘애플’ 사를 뒤따를 만한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포부를 담아 팀명을 ‘바나나’로 하였다.

**2. 구성원 소개**

팀장 : 김효정

팀원 : 강현우(2020112014) 이지호(2020112057) 김재철(2017111790)

(역할 분업에 대한 논의는 아직 하지 않음.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 있음.)

**3. 팀의 강점**

팀원들의 성실함, 적극성과 실천력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매주 토요일 10시마다 정기 회의를 하며 팀원 모두 프로젝트 진행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팀의 약점**

주제의 특성 상 휴대폰 어플을 만들기로 정하였으나, 팀원 모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본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다만 팀의 강점을 이용하여 약점을 보완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팀원 모두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이해와 실력을 쌓는 것이 목표이다.

**5. 프로젝트 주제 관련 설명**

안드로이드 스튜디오(Kotlin)를 사용하여 특정 음식과 업체명을 지정해, 사용자가 마감시간, 음식,인원을 설정해, 배달 비 부담을 줄여 금액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플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달 비 절약을 강조하는 어플이기에, 인원이 쌓일수록 배달비가 줄어드는 것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줄어든 금액을 체감할 수 있게 한다. 사용자가 직접 인원, 메뉴, 마감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글쓰기 항목을 만들었으며, 특정 인원이 모였으면 채팅을 통해 사용자들끼리 배달수령 시간, 장소 금액을 상의한다. 나머지 기능들은 이후 회의를 통해 세세하게 구현할 계획이다.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및 바이오메디캠퍼스 학생들을 특정 대상으로 제작한다면, 배달 수령장소를 특정할 수 있어 인원을 모으는데 있어서 사용자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테이블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6. 선정 이유**

치솟은 배달비 탓에 소비자도, 자영업자도 피해를 받고 있다. 배달비가 비싸짐에 따라 비용 부담을 소비자가 느끼게 되면, 결국 배달의 횟수도 줄어 자영업자에게까지 피해가 전해진다. 이에 소비자들은 배달비를 나누어서 내자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배달비를 나누어서 내는 ‘공동 구매’를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배달비 부담을 줄이고, 배달 횟수를 더 늘려 자영업자에게도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자료 1**

텍스트, 영수증, 스크린샷이(가) 표시된 사진

자동 생성된 설명

사진 출처 :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20210/111686886/1>

**자료 2**

*참고 기사 내용 :*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가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근심이 깊어졌다. 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가 음식값을 올리거나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 비율을 늘릴 수밖에 없어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있어서다. 비싼 배달비에 소비자들이 배달 이용을 줄이면 이는 자영업자에게 매출 피해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배달비 부담에 점차 음식을 배달시키는 횟수를 줄이게 된다고 말한다. 회사 근처에서 혼자 거주하는 심모(27)씨는 “배달비가 비싸서 가끔 주말에 밥해먹기 귀찮을 때만 배달 시키고, 거의 집에서 (밥을) 해먹는 편”이라며 “여기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서 원래 배달비에 거리 추가 금액까지 또 내야 되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더라. 기분전환용으로만 가끔 시키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출처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506326632194768&mediaCodeNo=257>

**자료 3**

*참고 기사 내용 :*

이에 온라인에서는 배달비를 아끼는 기발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배달 공구'가 대표적인데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끼리 단체 대화방 등에서 참여자를 모집해 여러 명이 함께 음식을 주문하는 겁니다. 배달이 도착하면 각자 주문한 음식을 찾아가고, 배달비를 나눠 부담하는 식인데요. 이 방법은 주로 1인 가구가 많은 대학가와 원룸·오피스텔 등 배달 음식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배달비를 아낄 수 있어 좋고, 식당 업주들도 배달 부담금을 줄일 수 있어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334408_35752.html>

**자료 4**

*참고 기사 내용 :*

당근마켓 동네생활에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 배달을 같이 시킬 사람을 구하는 등 공동 구매 관련 글이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직전 달인 작년 12월과 비교해도 15% 이상 많아졌다.  
일례로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는 최근 당근마켓 커뮤니티 동네생활에 “혹시 망원파출소 근처 사시는 분들 계시면 배달음식 합배송 시키실 분 계실까요? 음식 1인분 시키면 1만 원 정도인데 배달비가 3000원에서 4000원이라”라며 배달비 부담을 나눌 이웃을 찾는 글을 게시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BEUMPCL>

**자료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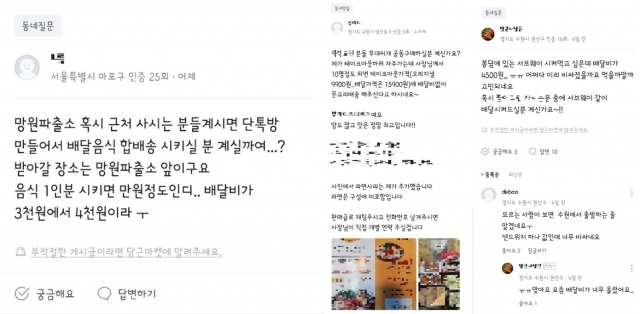


사진 출처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6819620&code=61141611&cp=nv>